



2016 상반기 부평문화포럼

모두 함께 만드는 부평생활문화센터

1회차 부평생활문화센터의 역할 찾기

일 시 | 2016년 6월 14일(화) 14:00-16:30

2회차 모두 함께 만드는 부평생활문화센터

일 시 | 2016년 6월 21일(화) 14:00-16:30

장 소 | 부평아트하우스 1층 아카이브실

주최·주관 |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2016년 상반기 부평문화포럼

모두 함께 만드는 부평 생활문화센터

1회차 부평생활문화센터의 역할 찾기

일 시 : 2016년 6월 14일(화) 14:00 ~ 16:30

장 소 : 부평아트하우스 1층 아카이브실

2회차 모두 함께 만드는 부평 생활문화센터

일 시 : 2016년 6월 21일(화) 14:00 ~ 16:30

장 소 : 부평아트하우스 1층 아카이브실

Program

14:00-14:02	개회	김유정_사회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장
14:02-14:10	인사말	박옥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14:10-14:30	발제 1> 생활문화센터의 정체흐름 및 방향	고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사무관
14:30-15:00	발제 2>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본 부평 생활문화센터의 역할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15:00-15:20	발제 3> 생활문화동호회 지원방안	유상진	성북문화재단 문화기획팀장
15:20-16:20	지정토론	류정아_좌장 김영현 임승관 이선철 안태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 유알아트 대표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전 부천문화재단 문화진흥팀장
16:20-16:30	자유토론	방청석	
16:30	폐 회	김유정_사회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장

Program

14:00-14:20	사회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14:20-14:50	발제 > 부평 생활문화센터 고민상담소	곽경전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14:50-15:10	사회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생활문화센터 상상하기		
15:10-16:10	참여자토론 공간조성/운영/프로그램/역할	권순석 윤현옥 임승관 최혜자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AEC비빗컴 대표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16:10-16:30	테이블 발표	박희령_자문	건축사무소 A-scape 소장

Contents

01 발제	생활문화센터를 통해 본 생활문화 정책의 현재와 미래	고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사무관	7p
02 발제	사례읽기와 부평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제안	최혜자	1 7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p
03 발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방안 : 주민의 자발성, 자립성 확보를 중심으로	유상진 성북문화재단 문화기획팀장	5 3 p
04 토론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의 현재와 미래	김영현 유알아트 대표	67p
05 토론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	임승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	73p
06 토론	창조도시 시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공동체 활성화 : 성남 사랑방문화클럽의 성과와 미래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81p
07 토론	생활이 바꾸는 예술, 예술이 바꾸는 생활	안태호 전 부천문화재단 문화진흥팀장	91p
08 발제	부평생활문화센터 고민상담소 :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	곽경전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97p

01

생활문화센터를 통해 본
생활문화 정책의 현재와 미래

고 영 진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사무관

I. 들어가면서

생활문화센터가 새롭게 시작된 ‘14년은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시행과 함께 생활문화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된 해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해 국가와 자체의 생활문화 지원 의무가 명시되었고,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중요한 목표로 생활문화 참여율이 제시되었다.’ 16년 현재, 지역 주민의 자발적·능동적 문화활동 공간이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문화용성의 거점으로서 생활문화센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올해 4월, 제5차 문화용성위원회 회의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가 제시된 것은 생활문화센터가 생활문화 정책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생활문화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추진되어왔던 생활문화정책의 현재와 앞으로의 정책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II.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현재 : 정책 방향과 추진 현황

생활문화정책은 △생활문화 시설 조성 및 운영 활성화 △개인 및 동호회의 발표·교류의 장, 문화자원봉사 등 활동 지원 △지원기반으로서 전문 인력 양성과 생활문화 진흥 기관 설립 △대상별 맞춤형 지원(소외계층, 노년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생활문화 정책의 주요 목표이다.

1.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생활문화 기반 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14년부터 조성된 생활문화센터는 3년간 101개소가 조성되었으며 그 중 37 개소가 개관되어 운영 중이다.(’ 16.5월 기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존

문화시설과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조성 예산을 지원하고, 동시에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유형별 컨설팅, 생활문화센터 대상 이용자 조사 및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 교육, 대국민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도시재생지역 내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성공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3년차로 접어드는 현재, 센터 당 월평균 868명의 주민이 방문¹⁾하고 있으며, 432명의 동호회 회원(재방문 포함)이 이용하고 있다. 센터 당 활동하는 동호회 수는 평균 13개,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만족도는 9.39점으로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와 참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생활문화센터 우수 사례(‘15.12월 선정)>

센터명	세부 내용
서산 생활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1호 생활문화센터(‘14.9.18)로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로 조성<2014.9 ~ 2016.4월> 50개 동아리, 370명 활동 중, 30~40대 이용률이 높고 (68%), 총 46회의 공연 및 전시 개최
두송 생활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폐목욕탕을 리모델링한 대표적인 유휴공간 활용 사례로, 거점형 공간으로서 다목적홀, 마주침공간 등의 디자인이 우수동호회 대표와 지자체 담당자간 의견 수렴을 통해 공간 구성

1) 2015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산 생활문화센터(충북 서산)>



<두송 생활문화센터(부산 사하구)>



또한 정부는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의 생활문화 기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박물관을 거점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또한 문화원·문화의집 등의 생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 생활문화동호회의 발표·교류의 장, 문화자원봉사 등 활동 지원

생활문화정책의 또 다른 틀로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동호회 발표·교류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마을 단위 주민 동호회 발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별·장르별 대표 동호회 축제를 지원하며, 전국 생활문화제 개최를 통해 생활문화 활동의 전국적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호회 활동의 유인을 제공하고, 동호회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자하는 국민들을 보다 많은 문화·체육 현장과 연계하기 위해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문화풀앗e’ (www.csv.culture.go.kr)를 ‘14년 12월 구축하였다. 1,100여 개의 활동처를 기반으로 3만8천여명의 회원을 참여하고 있다. 최근 도서관 자원봉사시스템과 통합이 완료되었으며 청소년까지 회원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새롭게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이 외에도 학생들의 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직장인의 동호회 활동 확대를 위해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등 새로운 생활문화 수요층으로 학생과 직장인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3. 전문 인력 양성, 생활문화 진흥 기관 등 지원 기반 마련

생활문화 진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전문 기관(5개소)을 지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경력자를 중심으로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지역 문화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많은 지역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문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인력의 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이 중요한 영역이다.

이와 더불어 생활문화진흥원이 4월 말 출범하였다. 자발적 문화활동과 생활문화시설을 지원하여 국민의 능동적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지역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의 집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문화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 확립과 함께, 조직의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이 필요하다.

4. 문화취약계층,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생활문화활동 지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동호회 발표·교류의 장, 문화자원봉사와 동시에 문화취약계층,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생활문화활동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임대아파트, 농산어촌,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문화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최대 3년)하여 문화를 통한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르신 대상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어르신 문화활동가 양성), △이후 아마추어 어르신 예술가들에게 문화를 통한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및 문화동아리 지원), ▲최종적으로 고령층 문화일자리 창출을 통해(어르신 문화일자리 양성사업) 어르신들이 문화를 통해 실질적·직접적 삶의 질 향상

을 체감할 수 있도록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III.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미래 : 향후 정책 과제

앞서 살펴본 생활문화 진흥 정책은 아직은 초기 단계로 앞으로 발전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그 중 몇 가지를 제안하고, 포럼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첫째, 생활문화센터의 성공모델 확산이 필요하다. ‘14~’ 15년의 경우 많은 수의 생활문화센터가 조성 중이었으나 ‘16년 현재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이 본격화되고 있다. 개관센터별로 유형별·단계별 컨설팅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생활문화센터의 우수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컨설팅과 교육에서 더 나아가 우수 생활문화센터의 성과를 높이고, 다른 센터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는 지자체 소유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다양한 공공·민간 시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활문화센터로 인정하는 등 생활문화센터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생활문화에서의 전문인력의 역할, 지역 주민과의 관계 형성 방법, 더 나아가 지역 주민을 어떻게 생활문화 전문인력으로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생활문화 분야의 전문 인력은 외부에서 파견되는 인력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육성되어야 하는 인력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생활문화자원(생활문화센터, 동호회 등)조사,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현황 파악에서부터 센터간, 동호회간, 센터-동호회와 지역주민간의 네트워크 형성, 새로운 수요창출 및 컨설팅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역할과 모습의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할 때, 인력 양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고용으로 연결될 것이다.

셋째, 센터와 동호회 등 생활문화활동의 자생적인 운영 방안 모색이다. 지역 문화진흥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생활문화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동

시에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생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전담 인력 및 운영비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은 필요하나, 향후 회비, 대관료, 동호회 공연 및 전시 등을 통한 관람료, 마을 카페 운영 등 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다. 동호회의 경우에도 정부는 동호회간 교류와 발표의 장이라는 간접적인 지원을 하며, 동호회의 자발성·자립성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활문화정책은 주로 동호회 등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개개인에 대한 정책 수단과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짧은 지면을 통해 생활문화정책의 현재와 앞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정책과제들을 담아보았다. 전문가만의 예술이 아닌, 모두가 함께 즐기고 만들어낼 수 있는 생활문화에 대해 포럼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발 제

02

사례읽기와 부평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제안

최 혜 자 |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생활문화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만드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

왜 생활문화?



왜 갑자기 국민의 일상의 삶에 대해 국가가 걱정하나?

정책이 미세한 국민의 삶에 관여하는게 맞기나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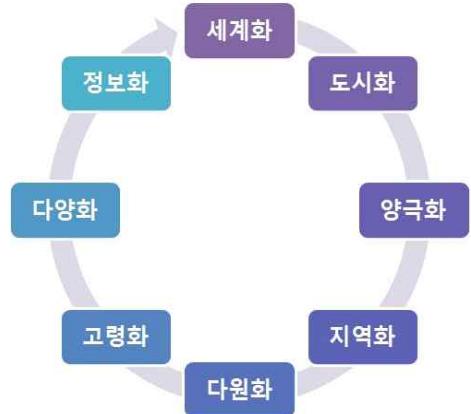
일정한 흐름 속에 사라질 정책인데 괜히 호들갑떠나?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1

현대사회는?

현대 사회는 인류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특징을 보여줌

다양한 성격이 혼재된
현대 사회의 삶은
힘겹고 어려움.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2

현대인의 문화적 역할 변화 => 모든 현대의 정책도 변화



통제와 지시가 가능했던 국민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주체

우리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1

한국인의 삶은 방식은? -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경제력을 가진 한국



우리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2

심지어 한국인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우리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1

그러나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저조

국가	순위
1 호주	18 프랑스
2 캐나다	19 일본
3 스웨덴	20 이스라엘
4 뉴질랜드	21 슬로베니아
5 노르웨이	22 스페인
6 덴마크	23 체코
7 미국	24 이탈리아
8 스위스	25 폴란드
9 핀란드	26 한국
10 네덜란드	27 그리스
11 루센부르크	28 슬로바키아
12 아이슬란드	29 헝가리
13 영국	30 포르투갈
14 오스트리아	31 에스토니아
15 아일랜드	32 칠레
16 독일	33 멕시코
17 벨기에	34 터키

2013년 world bank



우리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3

변화가 필요한 한국인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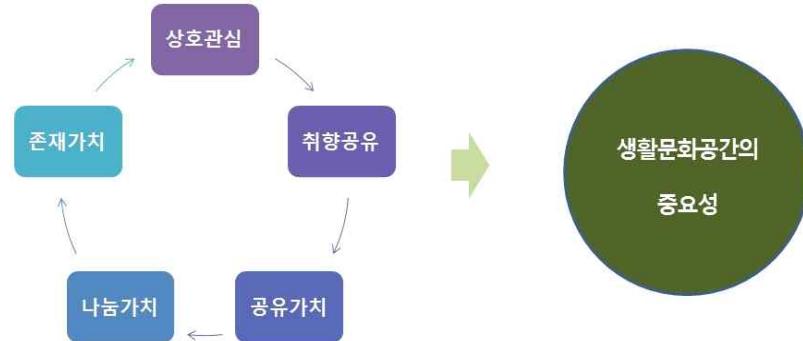


일상의 행복이 삶이 중심으로

지지와 연대가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존재가치를 일구는 삶의 능력 중심으로

재발견된 “벽장 속의 생활문화”의 가치



생활문화센터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생활문화센터의 역할

마주치고, 말 걸면서 이웃이 되는 장



생활문화센터의 역할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작용의 장



생활문화센터의 역할

일상의 주인공이 되는 장



생활문화센터의 역할

동네도 바꾸는 문화기지 - 생활문화프랜차이즈



생활문화센터의 역할

공동체적 격려와 지지가 있는 생활문화공동체



부평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촉진자

- 사람 발굴
- 관계 맺기
- 욕구 지지
- 활동 촉진
- 사회적 공유

생활문화담당행정

- 공간 제공
- 행정 패러다임 전환
- 주민 활동 지지
- 공직사회 여론 조성
- 사회적 공유

부평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 스스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공간, 계기를 만드는 곳

**생활문화가 활성화된 사회는
웃음이 많습니다.**

03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방안

: 주민의 자발성, 자립성 확보를 중심으로

유상진 | 성북문화재단 문화기획팀장

지역문화예술계의 숙원이었던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제정되었다. 개인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이 지향하는 최대 가치 또는 목표는 지역문화의 분권과 자치라고 생각한다. 이 때 지역이란 비수도권이라기보다는 ‘일상’이라는 물리적 또는 가치적 공간을 말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예술 중심이 아닌 삶이 중심인 문화가 지역문화라고 굳게 믿고 있다.

생활문화는 지역 문화의 분권과 자치에 있어 가장 최전선에 있는 영역이다. 관이 아닌, 전문 예술가가 아닌, 개인 또는 시민 누구나가 일상에서 스스로가 문화를 만들고, 향유하고, 공유하는 권리와 책임을 갖는 것. 이것이 지역문화의 분권과 자치라고 생각한다.

문화가 예술보다 더 큰 범주의 틀이라고 한다면(광의의 개념으로서의 문화), 짧고 어리석은 생각이나 ‘예술이 문화를 만든다’라고 평소 생각한다. 근대 미학이 말하는 숭고한 예술적 미학의 실천이 아닌, 그런 예술적 미학을 자신의 삶에 실현하는 ‘자기 실현으로서의 예술’이 진정한 예술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삶을 진리를 실현하여 예술작품처럼 숭고하게, 아름답게, 가치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미학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생활문화를 문화예술 중심 담론과 지역문화정책의 우선 과제로 발전시킨 성남시의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은 생활문화라고 하지 않고 생활예술이라고 말한다. 근대 예술에 대한 반성, 그리고 새로운 예술패러다임을 반영한 ‘생활예술’은 “특정 장르의 예술적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 관점, 태도”라 정의할 수 있다. 예술이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신뢰를 높이며, 보다 나은 삶과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술이 문화를 만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관계를 맺고, 나누고, 협력하고, 연대하며 공유하는 문화. 생활예술이 그런 문

화를 만들어 간다는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이다.

생활문화활동 양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동호회활동 형태로 활동한다. 동호회 활동은 굉장히 자생성과 자발성이 높다. 회장과 총무 등 조직을 구성하고, 회비도 낸다. 그리고 활동의 기획도 매우 주체적이다. 그래서 보통 동호회를 ‘취향 공동체’라고 한다. 비슷한 취향과 관심사로 모인 공동체. 그것이 생활문화동호회다.

공감하는 주장이 있다. 동호회에 금전적 지원을 해주면 동호회의 자생성과 자발성을 떨어뜨린다고. 맞다. 이 주장과 비판에 동의한다. 각 개별 동호회 활동을 금전적으로 직접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다. 그건 시민과 동호회의 몫이다.

그럼 왜 생활문화를 공적인 재원을 조성하여 지원해야 하는가? 지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논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난제다.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경제력을 가졌으니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할 것이다. 동의한다. 반면, 현재 우리의 사회, 경제적 환경을 보면 진짜 먹고 살만한가하는 의문도 있다.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부동의 세계 1위를 차지해 왔으며, 노인빈곤과 고독사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사회적 경쟁도 거의 세계에서 가장 심한 정도로, 삶의 행복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사회가 우리사회다.

예술이, 문화가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예술과 문화? 좋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고 예술과 문화가 자기 삶에서 얼마나 우선순위인지 물어보자. 과연 몇 명이나 문화와 예술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서 앞에 위치하는 우선순위일까? 개인적으로 거의 저 맨 끝에 위치, 거의 관심도 주지 않는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경제, 사회, 교육, 복지, 환경 등의 문제가 삶의 우선순위에 위치하는 반면, 문화와 예술은 저 끝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위치는 악화되어가는 우리사회의 조건에 따라 점점 더 뒤 쪽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한다.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 무관심의 영역. 무섭고 두렵지 않은가? 예술의 존재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본다.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 점점 독립적이고 자율적이 되어 궁극에는 존재감 없는 고립된 섬이 될까 두렵다. 예술을 우리 삶의 우선 순위의 앞자리로 위치시키야 예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예술을 삶의 우선 순위의 앞자리에 위치시킬 것인가? 생활예술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부평문화재단에서 제공한 참고자료들 중에 생활문화센터 건립과 운영에 있어 지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정리한 내용을 보았다.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필요한 많은 사항들도 제안해 주셨다. <부평생활문화센터>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생활문화와 관련해 지난 10여년간 정책연구와 현장업무를 담당하며 여러 경험들과 사례들을 겪으면서 가지게 된 여러 생각들 중에 하나가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다. ‘누구나에게 개방되고,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민주주의적인 목표이자 과정임에 틀림없다. 어느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간절히 요구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묻고 싶다. ‘누구나 ‘는 과연 누구인가? 또 여쭙고 싶다. 누구나가 사용하고 누구나에게 개방된다면, 그러면 누구나가 생활문화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인가? 민주주의는 ’권리 ‘와 ’책임 ‘의 양 날개를 가진다고 한다. 이 양 날개들이 같이 잘 움직여야 민주주의라는 ’새 ‘는 높고 멀리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그 누구나는 시민, 부평시민이라고 생각한다. 권리를 갖되 책임도 지는 시민. 시민을 단순히 ‘시(City)’라는 특정 물리적 공간에 사는 사람들을 일컫지만은 않는다. ’시민 ‘은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되어 근/현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정치적, 사회적 개념이다. 자유와 권리, 그리고 책임을 갖는 공동체의 소속 구성원.

지역의 많은 문화예술공간 운영에 있어 관 중심의 운영이 갖는 폐해와 문제점을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지적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시점의 이야기들을 다루었으면 한다. 우리 시민들은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책임도 져야 한다. 우리 시민은 책임을 질 의사가 있는가? 이에 대한 개인적 생각은 그리 긍정적 이지 않다. 요구들은 상당히 다양하고 많다. 대부분이 과한 요구는 아니라는 생각도 듈다. 있으면 좋은 것들임은 틀림없다.

거의 대부분, 솔직히는 거의 100%, 시민문화예술동호회들은 당신들이 사용하는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고 공공인력이 담당하는 생활문화 공간이나 시설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나 부담은 지지 않는다. 아니, 지지 않으려 한다. 어떤 분은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을 내가 쓴다는 데 무슨 책임을? “하

신다. 그러다 보니, 공공 생활문화공간의 운영과 책임은 전적으로 공공의 몫이다. 공간을 사용하는 시민 대부분에게 시민생활문화 공간은 사용은 내 권리이지만, 운영과 관리는 내 문제가 아닌 남의 문제다. 책임들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곧 생활문화정책, 사업, 공간, 활동 등 생활문화 전반에 걸쳐 해당되는 말로 시민의 책임 있는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생활문화센터와 같은 공간의 운영과 관리, 구체적으로 크게는 운영방향, 운영원칙, 운영구조와 조직 등을 직접 시민들이 만들고 지켜야 하는 것이고, 작게는 청소와 정리 정돈, 개인 또는 동호회의 개별 창고나 보관함 없이 사용하는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 등이다. 반드시 예산을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생활문화활동에 있어 주체적이고 공적인 의식과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개인주의와 개인의 주체성은 다른 것 아닌가?

욕하실 분이 많다는 것 안다. ‘갑질’의 왕들 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전형적 시각과 태도라고 비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소위 말하는 ‘관’이 아니다. 문화재단은 민법에 의해 만들어졌고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신분은 공무원도 아니다. 문화재단 직원들은 사실 지역문화 활동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공재원을 사용하는 같은 민이 공공성의 가치를 말하고 그 실천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들이 매우 불편하실 것이다. 이런 불쾌하고 무례한, 점잖지 않은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하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 해주셨으면 한다.

1. 생활문화공간의 운영 : 공간의 선점, 사유, 독점의 문제를 넘어 자치 및 공적 기여 실천

직접 겪었고, 많은 곳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다. 공간은 희망하는 이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없다. 생활문화센터도 한정된 공간이다. 이러다 보니 ‘누가’ 사용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고 그 기준도 명확히 있어야 갈등과 분란이 없다.

많은 경우, 시민문화예술동호회건 전문문화예술단체건 일단 공간을 한번 사용하면 ‘끝까지’ 사용한다. 주민자치센터의 경우가 그렇다. 우리는 이를 선점단체라고 부른다. 어떤 공공적인 기준 없이, 힘끼나 쓰는 분들에 의해, 또는 막무가내, 또는 방관으로 일관된다.

사물함, 창고는 훌륭한 편이시설이고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는 개인이나 특정단체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쓰는 공유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독점과 전용사례가 자주 왕왕 발생한다. 청소와 정리정돈은 사실 타인을 위한 배려이자 공동체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별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공의 재원과 공공인력이 투입되는 공간의 우선 가치는 공공성이고 그에 맞는 운영과 사용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맞는 공간 운영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간을 이용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과정 자체가 시민활동이고 공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 성남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사랑방공간 운영사례>

- 성남문화재단은 2개의 시민생활문화공간을 운영(연습, 발표, 전시)
- 동호회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1월~2월 공간사용 신청기간에 신청
- 서류심사, 인터뷰 등의 심사를 통해 1년간 사용이 가능(당해연도 3월~차기연도 2월)
- 심사기준은 1. 지역사회 공헌정도, 2. 지역생활문화네트워크 활동 정도
- 공간마련의 목적은 동호회가 자생적 기반을 다져 독립적인 공간 확보 까지 힘을 키우고 역량을 가지기까지 지원하는 것을 지향

□ 제안사항

- 공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간운영방향, 세부 운영방안, 원칙, 벌칙 등 전반을 재단과 함께 논의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
- 공간사용 무료가 공간운영의 책임성을 저해한다면 저렴한 ‘유료’도 좋을 듯 함
 - * 이 경우 사회적 경제주체가(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운영권을 갖게 하는 것도 좋음
- 토요일/일요일의 경우 사용주체들도 운영, 관리에 참여토록 하는 방법(자원봉사제, 순번관리제 등)
- 반드시 특정 몇몇 단체가 전용, 독점, 장기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생활문화센터는 ‘독립적이고 자생적 운영의 힘을 키우는 곳이며, ’그, 그녀, 그들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공유공간임을 자주, 분명히,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함
- 최대사용기한을 두어 그 이상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자생적 공간을 확보하게 함(예를 들면 한 동호회가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제한)
- 공공재원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만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요구

2. 생활문화동호회활동 : 개별 활동이 아닌 네트워크 또는 공동체 활동 중심으로 실행

각 개별 동호회활동은 자생성과 자발성이 매우 높다. 참고로, 마을에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마을사업들은 많은 경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결과로 동호회를 구성하여 향후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많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예산지원을 통해 조성된 동호회들은 사업이 종료되면 기대만큼 자생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사업을 위해 임의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활문화동호회는 취향과 관심사를 중심으로 형성, 활동하는 취향공동체인 반면, 마을공동체는 취향이나 관심사 보다는 교육, 육아, 환경, 복지 등 생활과 마을살이와 더 관련 깊은 생활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향공동체는 마을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과 동호회를 인위적으로 엮으려 하면 그 지속적 연대와 협력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취향공동체인 동호회의 활동이 사적 취미활동에 머물지 않고 다른 동호회와 연대, 협력하는 공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지향하는 지역사회의 공동체활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본다. 동호회활동 자체가 공동체활동이다. 그러나, 많은 사적인 문화적 욕구의 해소와 자기만족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와 같은 동호회네트워크는 공적인 목적,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성을 지향하는 ‘공동체들의 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공동체담론은 왜 나온 것일까? 공동체적 삶, 그 자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 아니라고 본다. 우리사회에서 공동체 관련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사회, 병리적 문제에 대한 처방 또는 해결책으로 공동체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생활문화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생활문화가 사람들의 관계를 형성하고 확대,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동호회들이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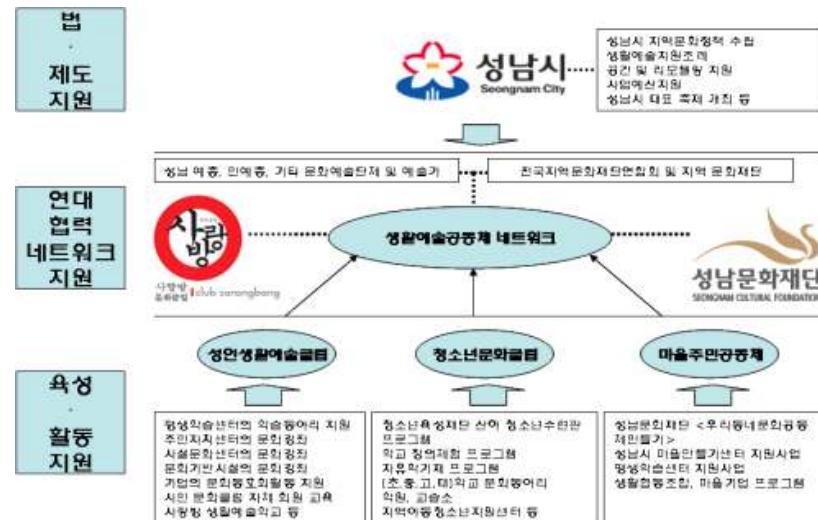
문제는 동호회들이 자기들의 동호회활동만큼, 동호회들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과 그 주체적 운영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왜 우리 동호회가 다른 동호회들과 함께 팀을 꾸리고 네트워킹을 해야 하는가? 그냥 우리끼리 활동하고 싶고, 그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동호회가 상당히 많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동호회는 그냥 자기들끼리 활동하도록 공공이 개입하면 안된다고 본다. 대신, 공적재원의 지원 또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사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개인적 취미활동에 공적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그 당위성이 약하다.

공공은 동호회들의 네트워크가 그 구성원의 의사와 생각, 그리고 그들이 직접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생활문화에서 자생성과 자발성이란 예산의 독립만이 아니라 참여 주체들의 주체적 활동과 그 역량을 말한다. 생활문화네트워크 운영에 있어 완전한 재원 독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또한 공공성에 기반한 활동이라면 공적 재원의 투입은 정당하다고 본다. 공공재원을 지원하되, 그 활동이 얼마나 공적이며 시민성의 실천과 확대, 발전에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3. 행정과 민간의 역할

지역에서 생활문화 관련 주체들의 역할구분도 예산과 공간, 그리고 인력들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각각이 구분되어야 한다. 아래는 성남에서 수행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의 추진에 있어 시(행정)/재단(중간지원조직)/문화예술교육을 맡고 있는 문화기반시설들의 역할을 구분한 것이다. 이는 부평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성남시 생활예술공동체네트워크 발전 추진 체계 및 역할분담>



아울러, 생활문화 관련 정책과 사업을 계획할 때 무엇을 하고, 어떻게 추진 할지를 고민하는 것과 함께 ‘언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오늘 논의하는 생활문화활동의 자생적과 자발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는 ‘출구 전략’ 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다. 공공이 민간과 함께 생활문화활동을 활성화하여 그 자체 동력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완전하게는 아니라더도 상당부분에서

공공이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 방법과 과정들이 협치를 통해 시작부터 준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은 생활문화를 포함한 지역문화의 작동원리는 지역민의 차치와 분권이기 때문이다.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생활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부평구문화재단의 노력이 부디 좋은 결실을 맺어 시민생활문화가 꽂피는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부평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토 론

04

생활문화센터의 현재와 미래

김 영 현 | 유일아트 대표

삶을 토대로 문화가 형성되고 문화는 예술의 토대가 된다.

일상에서 삶의 공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가능케 하는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고 운영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되고 있는 일은 매우 반갑고 즐거운 일이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있다. 예술진흥을 위한 예술위원회나 예술가들을 위한 예술인 복지 재단 등 예술진흥정책 중심의 기관들의 변화도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제는 일반인들이 향유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만들어 지고, 관련 기관들이 정체성의 변화를 시도하거나 새로운 조직들이 출범하고 있다. 그중 생활문화 관련 정책과 사업들의 다변화도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만들어 지고 있다. 이런 중에 지난달 출범한 생활문화진흥원의 출범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불과 10여년전만 해도 문화예술진흥정책에서 수요자나 향유자 중심 정책을 이야기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본인은 ‘당신도 예술가’라는 프로그램을 1999년부터 10여년동안 진행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에게 예술이 자기영역이라고 말하기 껄끄러운 시대였다. 하지만 정책의 흐름은 향유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예술에 대한 생산과 소비를 같은 맥락에서 접근 가능하게 했다.

그런 정책의 핵심에는 문화예술교육이 있었고 그 정책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활동의 영역을 확장 시켰다. 또한 1000억정도의 예산이 문화예술교육에 쓰여 지면서 6000명에 가까운 활동가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불과 10년만의 일이다. 이런 현실은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 문화적 경험과 예술적 감성을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이 충실히 만들어지게 한다.

오래전부터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을 표방하며 존재해왔던 문화의집이나, 문화원, 문예회관 등의 역할이 소비 공간에서 지역문화의 생산과 향유의 공간으로 체질변화를 시도했고 이런 영향으로 지역에서 다양한 단체나 동아리들이 등장하면서 문화예술이 삶의 저변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번 정권에서 문화융성이란 멋진(?) 화두를 던지고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

가는 모습은 이런 과정과 현상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슬로건이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오랜 진통 끝에 제정되고 이 법을 근간으로 지역문화의 본격적인 활성화가 기대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런 과정에 생활문화 진흥원까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생활문화의 가치가 발굴되고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과 사업들이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그동안 70개정도의 생활문화센터가 만들어 졌고 올해 새로 조성되는 센터까지 합하면 100개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이제 이런 본격적 활동은 지속가능한 정책적 안정감과 구조적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다.

10여년전 문화의집을 만들면서 다양한 기대와 응원이 있었다. 하지만 지원정책의 흐름에 맥이 끊기고 어렵게 자기 역할을 수행해온 문화의집들은 이제 중앙정책의 뒤편에 있는 듯이 보인다. 지자체의 의지에 의해서 그 존립자체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 100여개가 넘는 전국의 문화의집이 정책적 응원과 사업파트너로서의 위상에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맥을 잊고 활동의 폭을 넓게 가져가려는 노력들은 매우 가상하였다.

이제 생활문화센터가 거의 비슷한 숫자로 등장하게 된다. 기존의 문화공간이나 새롭게 재생 될 수 있는 유휴공간 등이 센터로 자리 잡게 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센터의 역할에 의해서 지역의 문화적 삶이 다르게 나타나고 센터의 활동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문화의집이 지나왔던 시간들을 회고 해보면서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잘 가리라는 기대를 한다. 실질적으로 문화부에서 생활문화센터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정책적 틀과 운영의 안정을 위한 인력과 예산에 대한 지원제도를 만족 시켜야 한다.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 다음정권으로 넘어가도 왜곡되거나 훼손 되지 않은 분명한 구조와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사업의 다변화와 참여하고 있는 지역민들에

게 충분히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몇몇의 사례들은 매우 긍정적이다.

공간이 지역민들의 자율적 운영과 책임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은 오래 갈 수 있는 방법들이다. 더불어 인력양성과 타 사업들과의 연계나 다른 문화공간들과의 협력구조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해 보인다.

더불어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에 하나가 덧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공간은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자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대부분의 문화공간들이 기존의 문화프로그램들을 답습하거나 지역민의 역구에 반응하는 정도를 넘어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의식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생활문화센터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는 공간으로 진화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자부심이고 지역의 문화를 읽고 바라볼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 날 필요가 있다.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공간으로서의 자기정체성과 문화가 있는 공간, 지역만의 특수한 문화가 있고 관계가 만들어 지는 공간으로 진화 할 때 그동안의 작은 문화공간들이 만들어 오고 역할을 해왔던 역할정체성의 진화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문화의집 문화원 문예회관 작은 도서관 등 많은 활동과 지역문화를 생산하고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열심히 해오고 있었다. 단지 소수의 지역민들에게 자기욕구를 실현하는 공간의 개념을 넘어 지역문화 활동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는 역할로 확장되기를 바란다.

문화다양성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스스로의 문화들이 만나고 인정되며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과 상호학습이 가능한 구성과 프로그램 지향점들이 적절하게 버무려 질 때 지역의 문화가 만들어 지고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지향점들은 이제 출범한 생활문화센터들이 무엇을 담고 무엇을 실천해 가야 할지 답이 보이기 시작 할 것이다.

생활문화 진흥원에서 제시한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향후계획에서 제시한 내용들이다. 여기에 몇대는 많은 이야기와 의견들이 필요해 보인다.

토 론

- 생활문화센터유형별 추진단계별 등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컨설팅추진
 - 수요조사등을 통해 세분화된 교육컨설팅 추진 및 신규분야 전문가 풀 및 과정 개발 등
- 생활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 구축
 - 권역별 유형별 등 생활문화센터간 정책과 현장 간 네트워크 구축. ,
- 생활문화센터 신규사업 개발 및 유관사업 연계모색
 - 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공분야 유관사업 연계
- 생활문화센터의 효과적 홍보 추진
 - 실질적인 홍보대상 및 채널을 통해 홍보효과 극대화, 우수사례 발굴 및 현장확산
- 정책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강화
 - 활문화센터공간, 운영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추진, 생활문화센터효과성(사회적, 경제적)연구,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및 분석

05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

임승관 |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

생활+예술의 사회적 역할

최혜자 교수님 발표에서 밝힌 것 같이 우리는 지금 심각한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들을 체감하는 곳은 대부분 우리 일상생활의 장입니다. 그래서 서로 호혜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협동과 자율의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예술이 지역에서 이루려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지역 주민들 스스로 편하게 소통하며 마음을 모으고 신뢰를 쌓아 간다면 지역은 불안사회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민주적 ‘소통’과 ‘협동’, 그리고 ‘자율’의 실현 가능성과 조건입니다.

로널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는 ‘문화 민주주의’라는 글을 통해서 사회가 생존가치(survival values) 보다 자기표현가치(self-expression values)를 중요시할 때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표현’은 개인 간 신뢰, 관용, 의사결정 참여 등이 민주주의에 이로운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생존을 위한 노력과 생활보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이 우선 되거나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불안이 견딜 수 있는 한도에 다가가면 생존 가치에 대한 몰입으로 문화적인 그 어떤 활동도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전문예술과 달리 생활예술에서는 저 둘의 가치는 함께 묶어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통계를 보면 사회적 신뢰도를 나타내는 ‘사회자본’ 지수가 높은 지역이 실제 경제적 소득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적 가치와 정치 경제의 발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문화산업이나 예술 경영 성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생활예술 활동은 주민들 누구나 자

신을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호호혜적인 협동을 통해 주민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일상적인 공론장을 통해 사적인 경험과 요구들을 공적인 모두의 문제로 토론하며 합의를 통해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이룬 작은 생활 현안 극복은 공동체에 대한 주민들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여 지역에 책임과 역할을 높여 내는 주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생활예술 공동체의 자생력 지원

생활예술에 참여하는 분들의 첫 동기는 기능 습득을 통한 자기만족입니다. 오직 자신의 실력 향상을 위한 결심과 기대입니다. 기타를 더 잘 치고 싶고, 밴드로 무대를 멋있게 서 보려는 바람에서 이전에 자신과 다른 변화를 주는 실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몇 주가 지나 서로 관계가 생기면 참여 동기는 개인(나)에서 ‘우리’로 바뀌게 됩니다. 서로 경쟁과 권력적 이해 관계없이 취미로 공감대를 이룬 공동체는 심리적 해방구인 제 3지대와 같은 소속감을 줍니다. 곧 서로를 위해 간식을 사 오고, 일주일 만에 바뀐 머리 스타일을 칭찬하고, 축하하기 위해 생일과 이름을 기억합니다. 구성원들은 일상화된 치열한 경쟁과 긴장이 만드는 고립감, 무력감과 같은 스트레스에 버티는 힘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익숙한 구성원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 이야기에 공감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2~3년 정도 지속하면 지역 현안에 관심을 두고 사회 공헌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구성원 내의 축적된 신뢰가 상호의존관계를 만들어 공익적 활동에 대해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뢰관계가 없이는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아도 공동 현안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계의 숙성 기간으로 2~3년이 지나면 모두

가 공감하는 공적인 현안에도 해결 방법을 논의하고 가능한 실천을 결정합니다. 이 작은 성공에 대한 경험은 자신도 자존감도 높아지지만, 공동체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갑니다. 책임과 주인의식이 높은 간부가 선출되고 자립적인 운영구조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주인의식은 공동체에 위기나 난관이 생길 때 스스로 나서서 내 문제로 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생활예술 공간과 자발성

공간(거점)은 일차적인 생활예술 모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공간 운영 방식과 조성 목적에 따라 효과와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공공의 문화 공간 지원 방식은 행정의 관리 감독과 책임 아래 있는 부설이나 민간단체 위탁 공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민간 자율공간, 또는 운영인력과 사업비, 공간 관리비를 지원하는 직영공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우는 이용자는 공간을 활용에 행정의 통제와 규정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공간 주체와 이용자와의 책임과 권리 불균형은 매개 사업의 자발성과 창조성이 한계를 정하게 됩니다. 생활문화공간이 이용자와의 안정적인 연습 공간 제공을 목표로 할 경우 공간 주체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와 적절한 통제 방법을 고민합니다. 이 경우는 이용자의 역량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창발적인 거점으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거나 이를 계기로 지역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기대하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공간 이용자의 자발성과 자생력의 지원은 그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나누고 함께 참여하여 책임지려 하는 것입니다. 브라질에 작은 도시 뾰루뚜알레그리에는 ‘참여 예산제’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민

주주의 모범으로 이 작은 도시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주민의 주인의식을 깨운 정책과 시스템입니다. 그 놀라운 효과는 작고 가난한 마을에 한 주민이지만 시 정부 정책과 예산에 스스로 영향을 미치고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발휘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만으로는 불가능했던 현안들을 해결했으며 주민의 역량으로 창조적인 정책들이 실현되면서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가 따라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다양한 의제들이 다루어지고 해결되는 창조적인 문화 거점은 구성원들의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자발성은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입니다. 하지만 주인의식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참여 예산제’와 같이 공간 운영 사업과 예산 집행에 대한 참여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입니다. 그래야 내 동아리에 대한 이기심을 넘어 전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참여나 개입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경우 이용자들은 쉽게 날카로운 민원인이 됩니다. 이용에 불편한 조건과 시설에 대하여 해결을 요구하는 착한 이용자 정체성은 그동안 백화점 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면서 익숙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이번 ‘생활문화센터’는 이러한 필요성과 기대로 시작된 문화시설 공간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문화시설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정책은 주민들의 생활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지만, 더 나아가서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문화 민주주의’의 거점 공간으로 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문화시설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권 중심부에 배치하여 주민들의 활동이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일어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도 커뮤니티 아트나 공공예술, 마을 만들기와 연계하여 문화예술을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요한 매개로 보며, ‘생활문화센터’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공간은 주민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주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이로운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없어도 배제하지 않는 공론장, 자율과 협동으로 생활 속 현안이 지혜롭게 해결되는 문화적 가능성을 발견하는 공간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토 론

06

창조도시 시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공동체 활성화
: 성남 사랑방문화클럽의 성과와 미래

이 선 철 |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1. 창조도시로의 지향

역사적으로 도시를 변천을 보면, 과거에는 도시의 많은 공간들이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이 강조되던 시대에서 최근에는 보다 시민들의 문화적, 복지적 측면의 질을 높일 수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도시들이 다소간의 명칭은 다르지만 문화도시 또는 창조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이제 도시가 얼마나 시민들의 창의적 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간이 지역의 예술가와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는 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는 단지 하드웨어적 측면의 시설 건립을 넘어 이를 채워줄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과, 구성원 간의 활동에 기반한 연대적 네트워킹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성공사례가 소개되면서, 이 도시들의 정책과 조성 과정 그리고 활성화 전략 등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최근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조도시론’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과 관련한 대표적인 학자로 찰스 랜드리와 리차드 플로리다 그리고 마사 유카 사사키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분야별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개별적인 이론과 그 성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도시 마케팅이나 장소 마케팅의 관점에서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처음으로 창조도시론이라는 용어를 주창한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창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술과 문화의 창조적인 힘을 믿으며 창조적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안에서 창의적 사고와 계획, 활동들이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수행되며 개인의 자질, 의지, 리더십과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창의적 조직문화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

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살아나고 도시의 공간과 시설들이 네트워킹하고 연대구조를 가짐으로 동태성을 확보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그의 저서 *Rise of Creative Class*에서 창조계급이라는 용어를 쓰며 새로운 계급의 부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추고 새로운 노동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며, 강도 높은 업무환경을 마다하지 않지만 문화를 즐기며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건강, 여가, 교육 등에 관심이 많은 계급이 부상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창의적 경제활동을 위한 창조계급들이 얼마나 도시산업구조에서 창의적 성과물을 내는가에 따라 도시성장이 좌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창조도시론자 마사유키 사사키(Masayuki Sasaki)는 한결음 더 나아가 창조하는 도시를 표방하고 자유로운 창조적 활동이 털 대량 생산적이고, 혁신적이며 유연한 도시경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술가, 창작자, 시민이 연계된 창의활동은 혁신적인 창의산업을 일으키고 나아가 환경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2. 문화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결국 창조도시로의 발전은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역의 활성화라 할 수 있으며 이의 구현을 위해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 가장 강조되는 분야가 바로 공동체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간들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 지역마다 각종 박물관이나 미술관 그리고 지역의 민간 또는 대안적인 문

화공간들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주민센터나 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일반용도의 시설에서도 문화적 활동이 활발해지며 이른바 ‘문화적 공간’으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공간이나 시설 등 물리적 인프라의 구축에는 또한 많은 위험이 따르게 된다. 호기롭게 정책이 시작되었으나 사업성을 검토하지 않은 과도한 투자나 이용객의 외면 또는 비전문적 운영으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그 실패를 쉬쉬하는 경우도 많이 본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자주 벤치마킹하는 현실에서 그 나라의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이 우리의 그것과 맞지 않아 현실과 상충된다던지, 전문가 그룹 자문의 비현장성, 지역 내 역학관계에 기인한 배타적 이기심과 편협성, 지역과의 네트워킹과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갈등과 반목의 표출 등등 많은 요소에서 실패나 위험의 원인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각종 문화공간들을 자산(property)이 아니라 자원(resource)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각 시설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장착이 따라주어야 한다. 또한 효과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체계의 구축과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문화공간이 지역에서 새로운 거점으로서 리더쉽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문화공간은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을 벗어나 이른바 실질가치를 창출함으로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지나 경제적 부가가치까지 이를 수 있는 로드맵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한 도시 또는 지역이 문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실천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 문화예술교육은 문화공간을 채워주고 전반적인 지역민들의 문화성을 강화해 준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하며 놀라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선도적 동력이라 할 수 있다.

문화가 더 이상 경제적 사회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거나 전문적인 안목과 식견이 있는 애호가만의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구성원들이 삶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문화와는 멀어 보였던 사회 취약계층들에게도 문화는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훌륭한 방법으로 이미 쓰이고 있다. 특히 최근 문화복지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대표적인 문화 취약계층인 장애인, 재소자, 군인, 다문화가정, 노인, 저소득층 아동 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다문화가정이나 노인문화, 그리고 아동들에게는 문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결국 많은 재원을 들여 조성한 각종 문화시설들이 전문 예술가에게는 창작과 공급의 플랫폼으로 작용하는 역할과 함께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과의 조화가 도시 전체 문화경쟁력을 제고하고 활발한 동태적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해주는 주요한 요소이다.

3. 성남의 경험

그런 면에서 지난 몇 년간 성남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한 성남사랑방클럽의 시민 동아리활동 및 창작활동 지원은 문화예술계에서 이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그 성과와 미래에 대한 활발한 담론과 향후 정책적 비전도 모색되고 있다. 사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인근의 대규모 문화시설이 조성되기 시작할 즈음 서울의 중심 시설을 제외하고는 그 효용성과 실제 활동도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성남 외에 고양, 의정부, 안양, 부천, 과천 등 소도읍과 대도시의 중간 수준의 서울 인접 지역에서 독립적인 문화시설들이 과연 지속적인 내부 동력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와 지역 수요 규모에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서울 내에서도 각 구에 조성되기 시작한 자치구 문화예술회관조차 그 경쟁력이나 전문성 및 만족도에 우려가 있을 정도이니 서울 인접 배후도시들의 문화시설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생겼던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고민을 안고 각 지역의 문화예술회관들은 독자적인 생존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하는데 콘텐츠의 고급화, 예술가 레지던스의 활용, 체육시설 등과의 복합기능 전략, 지역의 교육적 기능의 강화 등이 그것 들이다. 이런 정책적 시도들이 활발히 시행되던 시점, 성남의 경우 과감히 시민 예술활동의 지원에 중점을 둘으로서 이제 대표적인 성공사례이자, 문화프로그램으로는 드물게 독자적인 브랜드 포지셔닝까지 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영국과 유럽의 많은 창조도시 또는 문화도시들이 경기침체기와 쇠락기를 문화예술로 동력을 창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의 문화공간의 확충과 함께 내세운 것이 시민 문화예술 교육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태리의 볼로냐나 영국의 게이츠헤드, 핀란드의 헬싱키 등이 고유의 문화공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며 그 내부의 콘텐츠를 문화예술교육으로 채워 나가며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것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면서 지역의 현실과 니즈를 잘 반영한 성남의 사례는 세계 어디에 내어 놓아도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 지역문화의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이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른바 시즌2를 준비하며 피해갈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주민들의 활동이 활성화 되면서 보이지 않는 지역 내 영향력의 증대나 지원에 대한 욕구의 수요 급증, 활동 생태계 내 역할 갈등과 지역 내 편차 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자칫 그동안의 성과를 퇴색시키고 재단 또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이제는 이들의 욕구나 요구 공히 지역의 문화정책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적 동력의 분출을 발전적인

다른 영역으로의 활산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 지역 축제의 참여, 기획 인력의 활용, 중간교사나 2차 교육인적자원의 활용, 시민모니터링이나 자원봉사 조직으로의 승화 등에 대한 전략이 대두된다. 또한 시민 예술활동의 내적 동력과 지자체의 의지, 그리고 재단의 전문성이 잘 어우러져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거버넌스의 재구축도 중요하며 이러한 활동의 성과들이 문화계 내부의 성과로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 또는 국가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문화예술의 사회적가치의 구현을 입증하는 선도적 역할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발 제

07

생활이 바꾸는 예술,
예술이 바꾸는 생활

안태호 | 전 부천문화재단 문화진흥팀장,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협동조합 이사

생활문화, 혹은 생활예술이 예술의 가치를 전복한다는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중은 그저 문화예술의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실행주체로 이전한다는 의미에는 적극 찬동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념의 과정은 정책과 현장의 간격을 넓히고 운신의 폭을 좁힐 수도 있다.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이 우선되지 않으면 정책은 자칫 말로 하는 차력에 가까워진다. 정책의 질주는 언제나 현장의 아우성을 수반한다. 생활문화는 전문예술을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보충하고 확장하는 관계여야 할 것이다.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아마추어 동호회가 실력으로 프로를 모방하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 주변인들이 실력에 대해 덕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내는 경우도 생긴다. 교육을 통해 동아리가 만들어지는 구조 상, 많은 경우 생활문화 영역에는 강사집단들이 중심에 포진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생활문화 영역은 분명 다른 지점들이 있다. 가치지향이 전혀 다르게 설정되어야 더 건강하고 즐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천에서 기타를 가르치는 분과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다. 이 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마추어가 프로흉내를 내는 순간 망가질 위험이 높아진다고 진단 하더라.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는 생각보다 분명하다는 것이다. 너무 쉽게 프로튜어(proteur)나 프로슈머(prosumer) 같은 개념들을 사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그런 지점에서다. 분명,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정책을 논할 때는 열리어답터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앞선 움직임들을 용어로 정착시키고 상찬하며 목표로 삼는 순간 정책에서 비껴나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활문화는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개념의 확장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다수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경험이 한국사회에 희귀하다. 흔하게 목청을 돋우는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일상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토론과 타협을 일궈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당연하게도 이 영역을 가장 먼저 담당해야

하는 영역은 정치와 교육이지만, 생활문화의 경험을 통해 그 과정을 실험해 볼 수 있다. 문화바람의 사례가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 한다.

생활문화와 공동체에 대한 강조가 문화와 예술을 통해 사회를 바꿀 수 있다 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건지, 시스템의 부작용을 문화예술이 떠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애매할 때가 있다. 사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들은 시스템을 정비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물론,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시스템의 부작용이 아니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꽤 된다.) 폭넓게 보면 여가문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생활문화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노동중독사회를 우선 해결하지 않으면 공염불이다. 선결과제가 해결이 어렵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생활문화를 지렛대 삼아 한국사회의 노동조건과 삶의 구조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는 문화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물론, 정부부처 내의 역학관계나 정책방향이라는 거스르기 고약한 흐름들이 있겠으나, 타 부처와의 협의과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운신의 폭을 넓혀주었으면 한다.

이번에 네덜란드에 있는 옛 직장 동료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강력 할 줄은 몰랐다는 거다. 이 친구는 한국에 있을 때 매우 소극적이고 자기주장이 없다시피 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는 풍토를 접하고 삶이 달라졌다. 이웃들과 모임을 꾸리고, 인근 지역에 사는 예술가와 기획서를 꾸려 사업을 도모하기도 하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보기도 하고, 자기만의 작은 공예좌판을 여는 등 사회적 활동의 반경이 비약적으로 넓어졌다. 삶이 달라지는 건 인위적인 노력보다 조건과 환경을 갖춰주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 친구가 살고 있는 네덜란드 텍셀이란 섬에서는 주민들이 자신들이 기른 작물 등

을 집 앞에 작은 숍처럼 내놓아 팔곤 한다. 이 친구는 각종 액세서리를 만들어 숍을 운영하고 있다. 한 가지 더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국왕의 생일이 되면 많은 이들이 자기 집에서 음악회를 연다는 것이다. 내용도 대단할 것이 없다. 9살짜리 아들의 피아노 연주회 등을 타이틀로 걸어놓고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이야기. 부러운 생활문화의 현장이 아닐 수 없었다.

성남 사례 발제자가 생활문화의 출구전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마음에 걸린다. 생활문화는 출구가 아니라 확산전략이 필요하다. 지역문화재단 역시 자치와 분권의 전략적 단위 중 하나다. 아마도 생활문화 출구전략이란 개별 팀들이 공공영역의 지원을 졸업하고 자생력을 기른다는 의미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정책은 한 영역을 타격하고 빠지는 작전이 아니다. 생활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팀들을 발굴하고 순환하도록 거드는 역할을 명쾌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발 제

08

부평생활문화센터 고민상담소

: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

곽경전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부평생활문화센터 개요

부평아트하우스 설명

문화예술단체, 문화동호회, 예술인, 시민들의
창작활동 활성화와 상호간의 활발한 소통을 위한 열린 연습공간

- 위치 :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8
- 규모 : 공간 총 9개실(지하 1층 2개, 중층 1개, 1층 4개, 2층 2개)
- 이용시간 : 오전 9시30분~22시30분(1일 3타임 : 오전, 오후, 야간) 운영
- 사용료 : 오픈스페이스 2만원, 연습실/강의실/다목적실 1만원(4시간 기준)
- 대관수입 : 월평균 250만원(정기, 수시대관 수입 1/N)

2011.2-2015.12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운영
 2016.1-2015.7 부평구문화재단 '부평아트하우스'로 현재 운영 중
 2016.9-2016.11 리모델링
 2016.11 부평생활문화센터 오픈 예정

공간 운영현황 1

공간 설명

연습공간(3개)

- 오픈 스페이스 : 높은 천장과 방음시설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큰 소리 내는 활동에 적합
- 연습실 1 : 충격흡수 마루바닥과 간이 방음시설로 연극, 어린이무용 등에 적합
- 연습실 2 : 충격흡수 마루바닥과 간이 방음시설로 연극, 실내악/음악 등에 적합



명칭	오픈 스페이스(중층)	창작연습실 1(지하1층)	창작연습실 2(지하1층)
면적	181.28㎡	153.60㎡	192.00㎡
성격	종률 및 무용	연극 및 무용	연극 및 무용 실내악
수용인원	40~50명	30~40명	40~50명
구성시설	방음/흡음시설, 충격흡수 마루, 전면거울(1면)	충격흡수 마루, 전면거울(1면)	충격흡수 마루, 전면거울(1면)
부대 물품	CD플레이어 및 스피커 오디오 믹서 DVD롬보 / TV	CD플레이어 및 스피커 오디오 믹서 DVD롬보 / TV	피아노 CD플레이어 및 스피커 오디오 믹서 DVD롬보 / TV
가구	신발장	테이블 및 의자 신발장 화이트보드	테이블 및 의자 신발장 화이트보드
편의시설	냉난방기	냉난방기	냉난방기
리모델링	△	○	○

부평생활문화센터 고민상담소

공간 운영현황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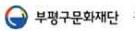
공간 설명

교육 및 회의 공간(4개)

- 강의실 1,2 : 영상 및 음향설비를 활용한 강의 등에 적합
- 다목적실 1 : 난방 가능한 좌식 바닥을 활용한 모임 및 활동 가능
- 다목적실 2 : 소규모의 모임이나 큰소리를 내지 않는 활동(세미나, 워크숍, 미술) 가능

명칭	강의실 1 (1층)	강의실 2 (2층)	다목적실 1(좌식/1층)	다목적실 2(압식/2층)
면적	64.80㎡	64.80㎡	43.20㎡	43.20㎡
성격	강의 회의/세미나	강의 회의/세미나	회의/세미나 기타 활동	회의/세미나 기타 활동
수용 인원	20~30명	20~30명	10~20명	10~20명
부대 물품	영상 프로젝터 CD 플레이어 및 스피커 오디오 믹서	영상 프로젝터 CD 플레이어 및 스피커 오디오 믹서	DVD콤보 / TV (이동식)	DVD콤보 / TV (이동식)
가구	책상 및 의자 화이트보드	책상 및 의자 화이트보드	좌탁	의자, 탁자 사물함
편의 시설	냉난방기	냉난방기	냉난방기 / 바닥난방	냉난방기
리모델링	○	X	○	X

1. 강의실 1
2. 강의실 2
3. 다목적실 1
4. 다목적실 2

 4

공간 운영현황 3

2014-2016 공간 이용률

1순위 창작연습실1 > 2순위 창작연습실2 > 3순위 오픈스페이스
설연휴가 있는 2월을 제외하고 월별 이용이 비슷
저녁시간 (35%) > 오후시간 (32%) > 오전/오후 시간 (14%)

2014.12.18~2015.9.8 기준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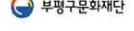


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강의실1	7.1	6.3	10.0	7.3	15.3	28.2	25.8	341
강의실2	5.9	11.2	8.14	2.10	22.39	26.99	23.18	353
다목적실1	5.9	11.2	8.14	2.10	22.39	26.99	23.18	353
다목적실2	5.9	11.2	8.14	2.10	22.39	26.99	23.18	353
오픈스페이스	5.9	11.2	8.14	2.10	22.39	26.99	23.18	353
창작연습실1	5.9	11.2	8.14	2.10	22.39	26.99	23.18	353
창작연습실2	5.9	11.2	8.14	2.10	22.39	26.99	23.18	353

2016년 부평아트하우스 이용률

2016년 부평아트하우스 시간대별 이용률

2016년 부평아트하우스 월별 이용빈도

부평문화재단  5

1. 전일
2. 저녁 18:30 ~ 22:30
3. 오후 14:00 ~ 18:00
4. 오전 09:30 ~ 13:30
5. 저녁 18:30 ~ 22:30
6. 오후 14:00 ~ 18:00
7. 오전 09:30 ~ 13:30

부평생활문화센터 고민상담소

공간 운영현황 3

동호회 현황 1

2016 부평아트하우스 이용 동호회

109개 모임
16명 (최소 1명 ~ 최대 50)
음악/교育/무용/극예술/전통예술/ 미술/체육/기타(8가지)

동호회 수
평균 참여자수
활동 장르

장르별 주요 이용 공간

- 음악장르 : 연습실 2(피아노 有) 사용빈도 ↑
오픈스페이스(흡연시설 有) 사용빈도 높지 않음
- 교육장르 : 강의실2 사용빈도 ↑
- 무용장르 : 연습실1 사용빈도 ↑(전연거울, 마루바닥), 오픈스페이스
- 극예술장르 : 강의실을 제외한 공간 사용의 제제를 받지 않음
다목적실 2를 유일하게 사용
- 전통예술장르 : 오픈스페이스(전장 높고 흡연시설 有) 외 연습실 사용

2016 부평아트하우스 이용 동호회 활동 장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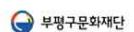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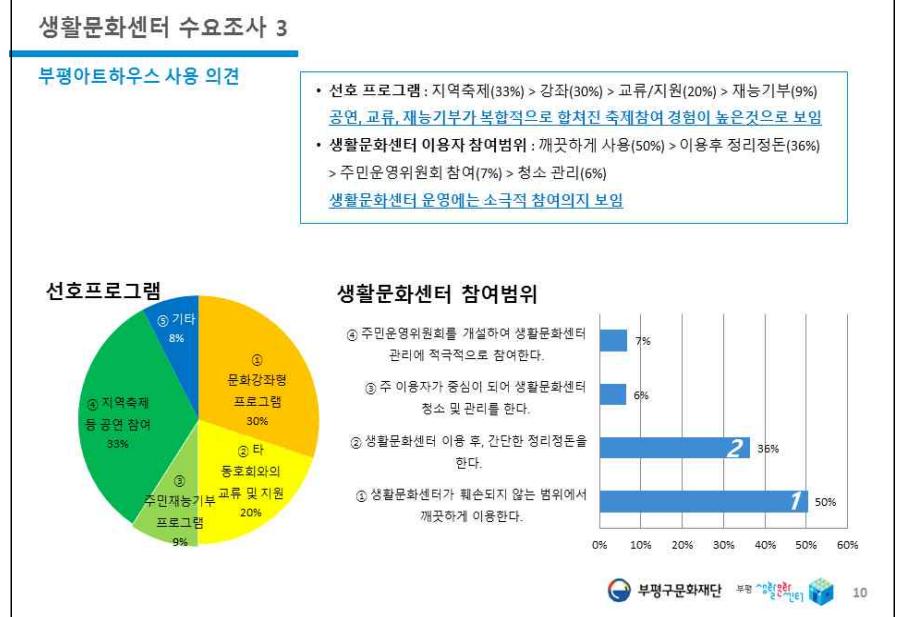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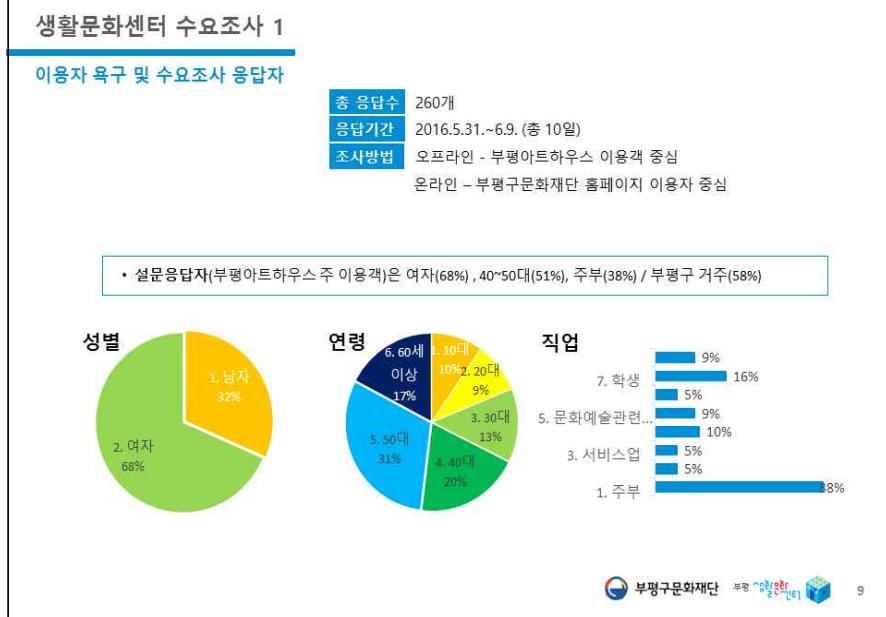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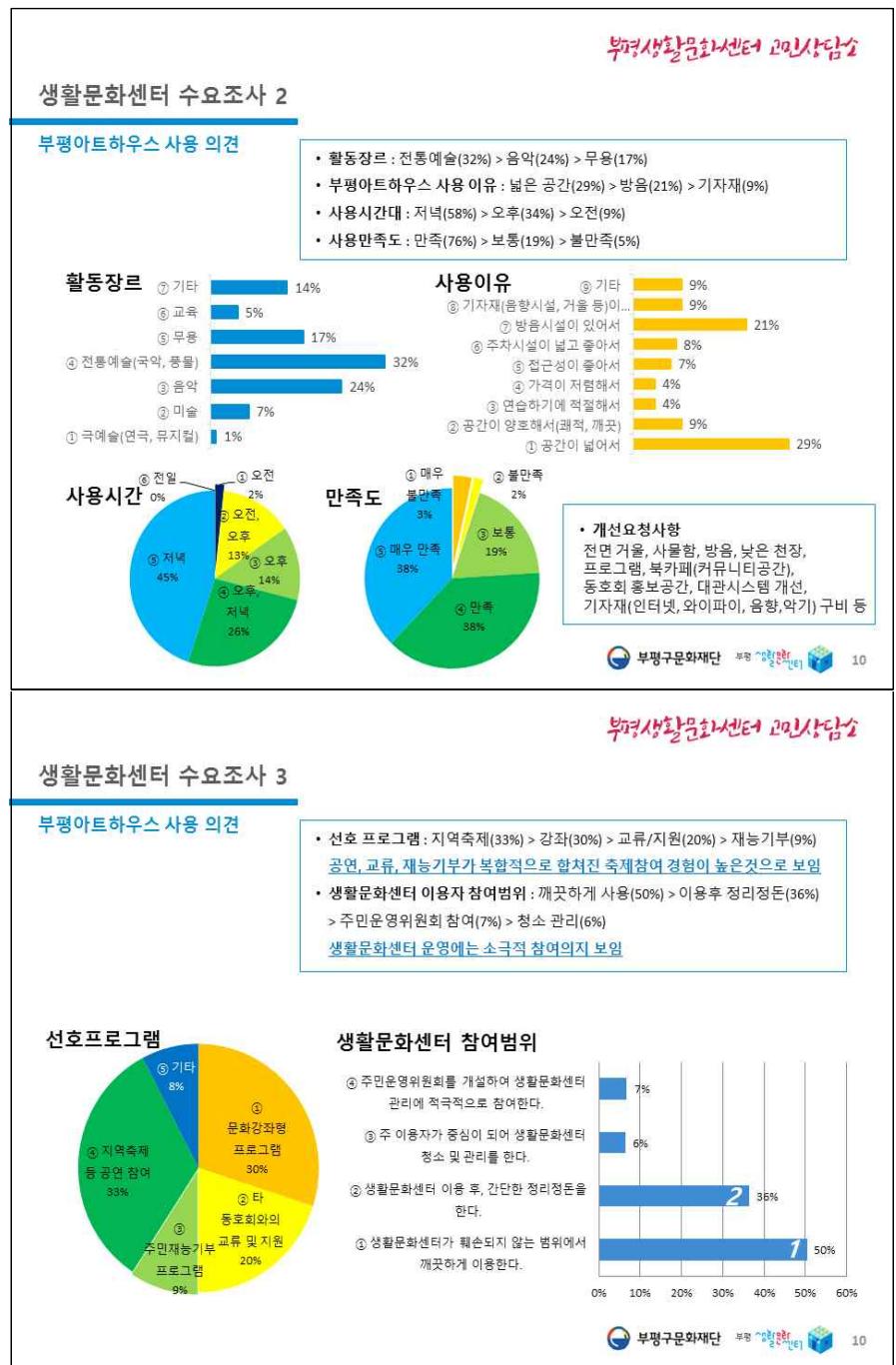
장르	음악	교육	무용	극예술	전통예술	미술	체육	기타
음악	23	19	19	16	8	6	1	8

2016년 부평아트하우스 동호회 장르별 이용 공간



장르	강의실1	강의실2	다목적실1	다목적실2	오픈스페이스	창작연습실1	창작연습실2
음악	9	5	5	0	0	4	12
교육	1	0	1	1	0	1	0
무용	5	10	2	0	0	7	0
극예술	0	0	1	1	0	4	6
전통예술	0	0	0	0	0	7	0
미술	0	0	0	0	0	1	0
체육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부평문화재단  7



부평생활문화센터 고민상담소

생활문화센터 수요조사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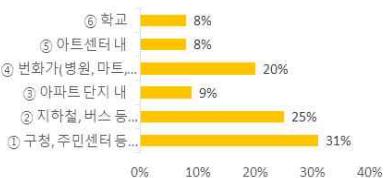
홍보

- 홍보방법 : 오프라인 홍보(포스터, 리플렛 등) (64%) > SNS(20%)
포스터, 팜플렛 등 홍보물 노출지속, 주 이용자 증인 40~50대가 선호하는 SNS 분석 및 홍보 방안 모색 필요
- 홍보물 배치장소 : 공공기관(31%) > 대중교통(25%) > 변화가(20%)
주민생활권 반경 중심의 홍보물 배치, 부평구 내 이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변화가 파악 필요

홍보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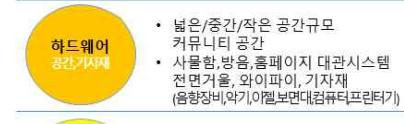
홍보물 배치장소



부평구문화재단 부평 ~행복한 일상~ 12

반영 계획 및 고민 점

반영 계획



고민 점

- 커뮤니티 공간의 설계
- 수요자 필요 및 인식 저조에 따른 마주침 공간의 역할
- 리모델링의 최소화



- 주민강사 배출방법
- 자발적 재능기부 활성화
- 참신하고 지속 가능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 공공이 만드는 생활문화센터의 모델 및 이상향
- 회원제 도입 여부
- 수입예산 사용 여부
- SNS 홍보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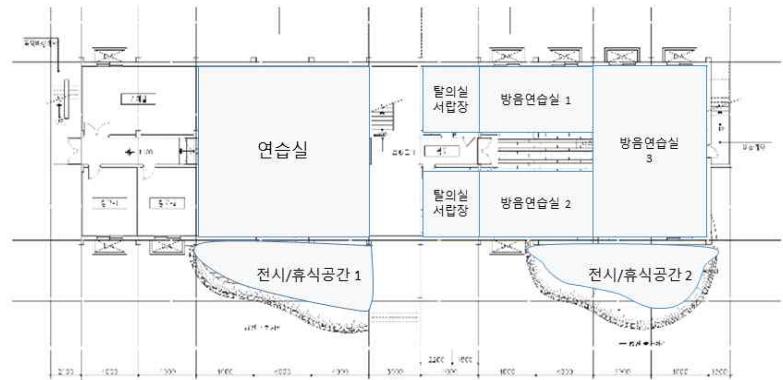
부평구문화재단 부평 ~행복한 일상~ 13

부평생활문화센터 고민상담소

생활문화센터 공간계획(안) 1

세부 리모델링

- 지하 1층** 연습실1, 연습실2, 창고1, 창고2, 탈의실1, 탈의실2
→ 연습실 1, 방음연습실 1, 방음연습실 2, 방음연습실 3
전시/휴식공간 1, 전시/휴식공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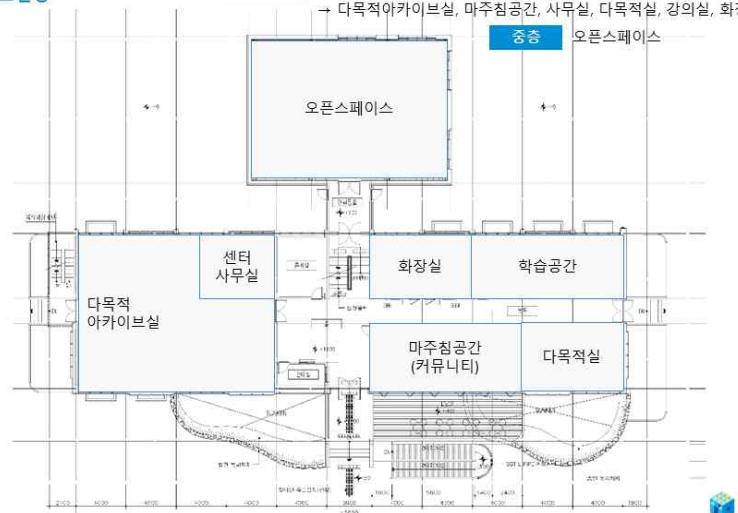
부평구문화재단 부평 ~행복한 일상~ 14

부평생활문화센터 고민상담소

생활문화센터 공간계획(안) 2

세부 리모델링

- 1층** 아카이브실, 커뮤니티실, 다목적실1, 강의실, 화장실
→ 다목적아카이브실, 마주침공간, 사무실, 다목적실, 강의실, 화장실
중층 오픈스페이스



부평구문화재단 부평 ~행복한 일상~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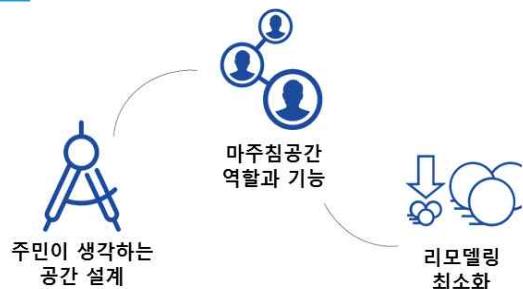
고민 1

앞으로 함께 풀어갈 문제

공간

부평생활문화센터 고민상담소

- 애착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 생활문화 동호회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오픈형 공간으로 리모델링



부평구문화재단 부평 생활문화센터 16

고민 3

앞으로 함께 풀어갈 문제

프로그램

부평생활문화센터 고민상담소

- 주민 강사 배출
- 자발적 재능기부 프로그램 활성화
- 기발하고 지속가능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부평구문화재단 부평 생활문화센터 18

고민 2

앞으로 함께 풀어갈 문제

운영

부평생활문화센터 고민상담소

- 공공이 만드는 생활문화센터의 모델 및 이상적 운영방식
- 회원제 도입과 수입예산의 활용
- 지역밀착형 홍보와 SNS 운영방안



부평구문화재단 부평 생활문화센터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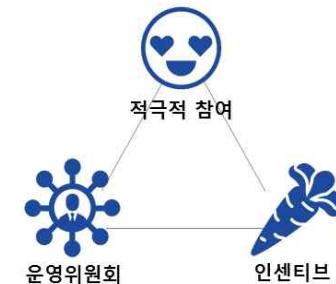
고민 4

앞으로 함께 풀어갈 문제

주민참여 & 역할

부평생활문화센터 고민상담소

- 주민들의 소극적 참여자세를 적극적인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묘안! - 과정별 기획
- 재단/주민/단체의 역할 구분_운영위원회 구성방법
- 적극적인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법



부평구문화재단 부평 생활문화센터 19



2016 상반기 부평문화포럼
모두 함께 만드는 부평 생활문화센터

발행인 박옥진
발행일 2016년 6월 발행
발행처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 기획조정팀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전화 032-500-2012 팩스

032-500-2160

<http://www.bpart.kr>